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한다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교육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 평가 '최우수' 올해 관내 7만5,400세대 동참

광주시 서구가 광주시 주관 '2022 탄소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3,000만원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목표 가구수 달성률 ▲목표 단지수 달성률 ▲참여자 개인정보 현행화 실적 ▲홍보 및 교육 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서구는 관내 총 7만5,333세대 달성, 1개 아파트 단지 신규 가입을 목표로, 동 주민센터 및 그린리더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공동주택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15개 아파트 단지과 구정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3개 단지(600세대 이상)가 탄소포인트제에 신규 가입해 현재 총 7만5,400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구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년 대비 1만3,136톤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중은행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서구는 1탄소포인트 당 1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구는 지원받은 3,000만원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비를 내년 초 '탄소은행 우수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이다"며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최근 서구 치평동 17개 아파트 1만여 세대가 가뭄 극복을 위해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물 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구 제공

치평동 물절약 '수압조절 100% 달성' 결의대회

17개 아파트 1만여 세대 참여

광주시 서구 치평동 17개 아파트 1만여 세대가 가뭄 극복을 위해 '수압조절 100% 달성'을 결의했다.

지난달 30일 서구에 따르면 상무지구아파트 연합회 소속 1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최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물 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치평동 주민들은 물부족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우리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 고갈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치평동에서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물 절약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세대마다 수압조절만 해도 평소보다 20~4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어 치평동은 아파트 차원에서 자율적인 수도밸브 수압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치평동은 치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전달식, 치평동 마을단체 물절약 실천 릴레이 홍보 활동, 관내 공원 화장실 수압저감 및 양변기 물병 넣기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물절약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조진욱 치평동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위기 극복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마을 속 공간더하기' 협약식 경로당, 노인일자리아사업장 활용

광주시 서구는 최근 구정 소유 경로당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공유·활용하는 '마을 속 공간더하기(+)'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동 양호경로당은 서구시니어클럽에서 밀반찬, 탈취제만들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아사업장으로 국수 전문점 '양동국시'를 양호경로당 별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화정1동경로당은 화정1동새마을문고에서 치매예방교육, 공우주방 등으로 사용하고, 화정3동 장락경로당은 '화삼골짜기'에서 식물키우기, 수공예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혜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약정식

2022. 11. 29.(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은행



서구 금고 약정식 서구는 최근 광주은행과 '광주시 서구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23년부터 4년간 서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를 관리하며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지급업무를 맡는다. /서구 제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호응'

이차보전금 4% 상향 조정

신용보증재단 48억원 지원

광주시 서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4%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억원(광주은행 5,000만원 출연)을 출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억원(광주은행 5,000만원 출연)을 추가 출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총 48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서구는 지난 10월 추가 출연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금을 기존보다 두배 규모인 4%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200여 명이 약 34억원의 특례보증 대출 혜택을 받았으며 이차 부담이 줄면서 대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특례보증 제도가 코로나 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고 골목경제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체계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대출을 희망하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062-362-0091)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증발된 지구' 5~9일 전시회 연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뭄 등 이상기후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구는 생활 속 물 절약 홍보와 주민 참여도 모하기 위해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증발된 지구,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재난으로'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 이미지는 총 20점으로 자원 재활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현수막으로 만든 캔버

스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홍보 현수막은 종이로 제작했다. 또한 양치컵, 설거지용, 절수기기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아이템을 함께 전시할 뿐 아니라 메타마 동북댐 이미지에 물 모양 포스트잇을 부착해 물 절약 실천의 의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구는 향후 전시 이미지를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활용해 지역사회 내 물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 성료

광주시 서구는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하기 위해 최근 광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7회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단체, 시설 이용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미스행복팀(행복주간보호센터)의 댄스공연 ▲비전아코디언팀의 아코디언 앙상블 공연 등 장애인 예술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노래 및 장기자랑, 시상식,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의료진 및 안전요원을 행사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혜린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신고하나요?
언제 신고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나무